

2부 한국 기독교인과 기독교 사회에 던지는 제언

■ 어두운 시대, 최소한의 양심은 어디에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 마르틴 루터 킹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돌우어지고,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 나 자신이 세례자 요한이 될 용기는 없다고 감히 고백한다. 그렇게 비겁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손으로 세례자 요한을 처벌하고 응징하는 바보짓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지혜와 용기에 감사하기는커녕 욕하고 가두는 일에 앞장선다면 예수를 죽이려고 한 헤로데와 무엇이 다르며, 유다를 강제로 침입하고 무력으로 통치한 로마 점령군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또한 율법을 자신의 독점권력이라고 착각하며 거짓과 위선을 일삼았던 사두가이나 바리사이와 무엇이 다르다 말할 수 있겠는가?

■ 왜 한국교회는 보수주의에 안주하는가?

• 가난한 이, 굶주린 이, 억압 받는 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은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정의다. 예수는 그런 사람들의 참된 삶, 인간다운 삶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쳤고 실천했다. 그러한 정의구현에 투신하는 일을 결코 '속되다'고 '삿되다'고 할 수 없다.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곧 성서 전통의 뿌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인간 역사 속에 하느님의 말씀과 법이 자리 잡을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회적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거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다르지 않다.